수완나부미 제1권 제2호(2009년 12월) : 105~112

베트남 영화와 당녓밍 감독

Vietnamese Films and
Director Dang Nhat Minh

배양수*
Yang Soo BAE

베트남에 최초로 영화가 도입된 것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인 1898년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프랑스인과 프랑스 군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상영되었다고 한다. 상업 목적의 극장이 설립된 것은 1920년 이후이며, 1930년대 후반에는 베트남인에 의해서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1945년 9월 2일 독립을 선언한 북베트남 정부에는 35mm 촬영기가 단 한 대 있었는데, 그 촬영기는 필름 한 통에 7미터밖에는 넣을 수 없는 거의 사진기 수준이었다고 한다.

1953년이 되어서 국영영화사가 설립되었고, 1958년 가을에 베트남 최초의 극영화 <우리들의 강Chung một dòng sông>이 홍응이(Hồng Nghi)와 히에우전(Hiếu Dân) 감독에 의해 촬영에 들어가서 1959년 7월 20일 개봉되어 대단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 이후 베트남은 거의 대부분 제국주의를 비판하거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선전성이 강한 영화를 만들어 냈다.

베트남이 도이머이 정책을 천명한 이후로 베트남 영화계는 독립채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baeys@pufs.ac.kr

산제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전의 영화는 모두 국가의 지원으로 국영 영화사에 의해서 제작되었지만 이제는 민간 영화사의 활동을 허용하면서 민간 자본에 의한 상업성을 목적으로 한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 물론 매년 몇 편의 영화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베트남 영화사에서 나름대로 관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작품과 감독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히트작을 내고 외국에도 널리 알려진 영화감독으로 당녓밍(Đặng Nhật Minh)씨가 있다.

그는 2009년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전장 속의 일기>라는 작품을 출품하였다. 이 작품의 원제는 <태우지 마라 (Don't burn)>이다. 이 영화는 당투이쩜이라는 북베트남의 여군의관이 1968년부터 1970년 희생되기 전까지 전쟁터에서 쓴 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부상자들을 치료하면서 겪는 아픔과 부모형제에 대한 그리움, 사랑에의 갈망을 진솔하게 일기로 기록한 것이다. 이 일기는 전쟁터에서 미군의 통역을 맡았던 남베트남 군인이 획득하여 미군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남베트남 통역병이 그 일기를 미군인 프레드릭 화이트헌스트에게 건네주면서 “태우지 마시오. 이미 그 속에는 불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미군의 노획물 처리 원칙은 전쟁과 관련

<그림 1>
베사모 만찬장의 당녓밍 감독(오른쪽)

이 있는 것들은 회수하고, 나머지는 소각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일기를 건네받은 화이트허스트는 베트남 통역병의 말 때문에 그 일기를 보관해서 미국으로 가지고 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제수씨(베트남인)을 통해 내용을 번역하게 하였고, 감동을 받아 일기를 쓴 당투이쩜의 가족을 찾았고, 2005년 이 일기가 베트남에 소개되었다.

그런 연유로 영화제목을 <태우지 마라>로 정했다고 당녓밍 감독이 말했다. 이 영화는 촬영은 베트남과 미국에서 이루어졌고, 음악은 체코 작곡가가 담당하였고 후반작업은 태국에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이 일기의 원본은 현재 미국 텍사스텍 대학교 베트남센터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작품으로 당녓밍 감독은 2009년 베트남 영화제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1938년 베트남 중부, 당시의 수도였던 후에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인 1936년에 하노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43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당시 북베트남 정부의 근거지였던 서북 산악지대로 비밀리에 귀국하여 활동하다가 집을 떠난 지 7년 만에 연락이 되어 가족 상봉이 서부 산악지대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걸어서 3달 만에 아버지를 재회할 수 있었다. 열세 살 나이에 3개월 동안 걸었던 기억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70이 넘은 지금도 걷는 것은 자신있다며 웃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베트남에서 유일한 말라리아 전문가였고, 당시에 말라리아에 걸린 고위층 지도자를 치료해준 인연으로 후에 그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의 어머니는 서북 산악지대에서 병으로, 아버지는 1967년 중부지역에서 말라리아치료법을 연구하다가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했다.

그는 중학생 때 중국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중국에서 공부하다가 러시아 통역원 과정으로 선발되어 모스크바에서 18개월 동안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만 19세 때에 귀국하여 문화부에서 통역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그는 다시 중앙 영화 및 배급기관에 배속되어 주로 러시아 영화의 번역을 맡게 되고, 러시아 영화의 번역 활동을 한지 5년 만에 러시아 감독이 실시하는 베트남 최초의 영화인 양성 코스의 영화제작 실습에 러시아 영화감독의 통역을 맡게 되면서 영화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 통

역을 끝내고 그는 영화학교에 부탁하여 영화학교에 남게 된다. 그곳에서도 주로 영화관련 자료를 모으고 번역하는 일을 하면서 영화에 대해 공부하다가 1956년 영화학교 졸업 작품을 만들 때 학생들이 그를 감독으로 추대하여 작품을 만들게 되면서부터 영화인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그의 실질적인 극영화 첫 작품은 <바다의 별들>이라는 작품으로 베트남 북부 하이퐁 항구에서 무기를 싣고 남쪽으로 운반하는 선원들의 애환을 그린 작품이었다. 1976년에 불가리아에 파견되어 6개월간 감독 연수를 받고 귀국한 이후로 명실상부한 영화감독으로서 대우를 받게 되었다. 이후 1983년 그는 자신이 직접 쓴 단편 <손 안의 읍내>라는 작품을 영화로 만들어 그해 호찌민시에서 개최된 베트남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금연꽃상(Golden lotus prize)을 수상하였다. 이 상을 받고 난 이후로 그는 자신이 직접 시나리오를 써서 영화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한다. 앞에 언급한 <전장 속의 일기>도 자신이 직접 시나리오를 썼다.

그의 히트작으로 <시월이 오면>이란 흑백 영화가 있다. 그는 이 영화가 전쟁을 겪은 자신의 가족, 아니 대부분의 베트남 가족의 애환을 그린 영화라고 했다. 그는 강가의 둑에 있는 식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저 멀리 논에서 사람들이 남루한 차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그는 장례행렬이라는 것을 알았다. 네 명이 관을 메고 그 뒤에는 흰 수건을 두른 젊은 여성이 7세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 손을 잡고 따르고 있었다고 한다. 식당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는 그녀의 남편은 군인이었고 이미 희생된 지 오래되었지만 이제야 전사 통보를 받게 되어 사체 없이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했다. 이 광경을 보고 만든 영화가 <10월이 오면>이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서남부 전쟁터로 남편을 만나러 갔던 부인이 이미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것을 지나던 이곳 학교로 새로 부임하던 선생님에 의해 구출되고, 그 부인은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아버지를 위해 그 남자 선생님에게 마치 아들인양 가끔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아들의 편지를 받았던 시아버지는 편안히 눈을 감는다.

그러나 그 편지가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 보낸 편지라는 것이 들통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 부인과 선생님과의 부정한 관계로 의심하게 되고, 결국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쫓겨난다. 그러나 후에 마을 사람들은 모든 정황을 알게 되었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10월에는 그 선생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기다린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에는 죽은 남편의 영혼과 부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당넛밍 감독에 따르면 이는 베트남 민담에 많이 나오는 얘기라서 삽입을 했으며, 본인 자신은 이 장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영화사 사장은 이 장면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유는 미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주 경직된 사회주의체제에서 미신은 없어져야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감독은 삭제를 반대하고 영화사는 삭제를 요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영화사는 개봉 전에 상급기관인 문화부 차관, 장관, 정치국원, 정치국 문화사상 위원장, 결국은 당 총서기 앞에서 까지 상영하게 되었다. 모두 13번의 검열을 통과한 것이다. 감독은 마치 자신이 범죄자로 계속 재판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그의 술회에 따르면 당시 총서기였던 쯔엉찡이 관저에서 영화를 보고 난 후 여주인공 배우에게 다가와서 "정말 안타깝구먼!" 이라는 한마디만 했다고 한다. 그 말이 상영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섰지만 그 뒤로 영화사 사장은 더 이상 삭제를 요구하지 않아서 일반에게 상영되었고, 아주 큰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이 영화로 그는 프랑스 정부의 초청으로 1년 동안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가 파리에 도착한 지 1달여 후 프랑스 외교부는 프랑스 영화관계자는 물론 외교관들을 초청하여 시사회를 열었다고 한다. 1985년 11월에는 하와이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또 1999년 제4회 부산 국제영화제에 출품되었다.

베트남이 개방을 천명한 이후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영화가 1987년에 나온 <강 위의 여자Cô gái trên sông>(1987)이다. 이 영화 역시 부산국제 영화제에서 출품되었었다.

베트남의 고도 후에가 통일되기 전, 후에에서 비밀활동을 하던 북베트남 전사를 응웻이라는 몸을 팔던 창녀가 도와주었고, 둘은 서로 사랑을 약속하게 된다. 후에가 해방되자 응웻은 어렵게 그를 찾았지만 그는

모른 척하며 배신한다. 그는 이미 후에 시의 고위 당간부가 되어 있었다. 이에 삶의 희망을 포기한 응웻은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다.

한편 신문사 기자로 일하는 리엔은 응웻에 대해서 이미 취재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자살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다가 자총지종을 취재하여 기사를 썼지만 압력 때문에 신문에 실리지 못한다. 뒤에 리엔은 신문에 기사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자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으며, 응웻과 사랑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다.

1987년은 베트남이 개방정책을 선언한 직후였기 때문에 시나리오 검열도 어려움 없이 통과되었고, 영화 검열도 쉽게 통과되었다. 그런데 영화가 공개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베트남 공산당 고위 간부가 조국전선의 포럼과 제7대 국회에서 이 영화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이후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해 베트남 영화제가 중부 다낭시에서 개최되었다. 심사위원들의 투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당 고위층에서 싫어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합의점으로 금상이 아닌 은상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직위원회의 그러한 결정을 들은 당넛밍 감독은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상영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 영화는 영화제를 끝으로 베트남에서 상영되지 못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에서 수입해갔다. 그리고 2000년 4월 유럽텔레비전은 베트남 통일 25주년을 기념하여 베트남 영화로는 유일하게 <강 위의 여자>를 방송했다.

그런 가운데서 1994년 영국 4채널 텔레비전의 지원으로 <귀환 Trở về>이란 영화를 제작했고, 이 작품은 시드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베트남 극장에서는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베트남 극장은 필름영화가 아닌 비디오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후에 베트남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됨으로써 베트남인들도 볼 수 있었다.

1995년에는 일본 NHK TV의 지원으로 <향수Thương nhớ đồng quê>라는 영화를 제작하였다. NHK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 영화는 후반작업이 일본에서 이루어졌다. 이 영화는 도이머이 이후 가장 두드러진 작품들을 쏟아낸 소설가 응웬후이티엡의 단편을 각색한 것이었다.

줄거리는 베트남 북부 농촌에서 어머니와 형수를 모시고 사는 열일곱 살 난 소년 념이 성장하면서 겪는 사랑과 갈등을 그렸다. 형이 도시로 가서 일하느라 집안일을 돌보며 외롭게 사는 형수 응으, 도시로 갔다가 귀향한 도시화된 처녀 꾸엔과 념이 가까워지면서 시동생을 시동생 이상으로 생각했던 형수가 겪는 아픔을 시동생인 념이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1996년 베트남 영화제에서 관객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에서, 재미있다, 보통이다, 재미없다의 3가지 중에서 고르도록 했는데, 응답자의 78.6%가 재미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많은 베트남 작가, 평론가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런데 일부에서 베트남의 변화된 농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했다면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후 베트남 공산당 문화사상 위원회는 중앙과 하노이시의 신문사 편집장을 들을 불러 이 영화를 보게 했다. 영화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왜 이영화가 비판을 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작품은 세계 60개 이상의 영화제에 출품되었다. 당넛밍 감독은 이때가 “마치 자신이 차에 치였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툭툭 털면서 일어나 다시 걸어가는 느낌”이었다고 자신의 억울했던 심정을 토로했다.

1996년에는 <1946년 겨울-하노이>라는 호찌민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제작하여 토론토에서 개최된 영화제에 출품하였다. 이 작품은 1999년 후에에서 개최된 베트남 영화제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200년 8월에는 <구아바의 계절>이란 영화를 파리에서 후반작업을 마치고 바로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에 출품하였다. 이 작품으로 2001년 베트남 영화제에서 그에게는 세 번째인 금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국제영화클럽의 돈키호테상, 오슬로 영화제 비평가협회 특별상, 나무르 영화제 특별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사람들의 삶보다 더 영화적인 것은 없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 삶은 항상 사회, 국가의 운명과 유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영화에서는 개인의 삶을 그린다고 해도 항상 그 사회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의 영화는 전형적인 베트남의 보통 사람들(한 두 작품만을 제외하고)의 삶을 보여주었고, 이는 세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인들이 자기들과는 많이 다

<그림 2>
영화 <10월이 오면>의 한 장면

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베트남인들의 모습에서 비록 문화는 다를지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심성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베트남 영화감독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영화감독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감독이기도 하다. 그는 많은 작품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1980년대 이후 제작된 그의 영화는 대부분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베트남 영화를 국제 무대에 알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부산 국제영화제에만도 그의 작품은 <향수>, <10월이 오면>, <구아바의 계절>, <강 위의 여자>, <전장의 일기> 등 5편이 소개되었다. 또한 그는 한국의 김기덕 감독과 박찬호 감독을 가장 좋아하며,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